소박한 집…….언제나 김 목사님의 집은 소박하였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집도 소박하고 새롭게 이사 한 집도 아주 소박한 집 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던 박목사님 부부가 일어나서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이영숙씨는 얼굴이 많이 핼쑥해져 이었고, 서로 악수 하는 순간 내 손으로 차가운 냉기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냉기 였습니다.정보.즉암세포를자살로유도하는프로그램이입력된물을드리는것입니다.이물을 "이영숙씨원칼이렇뙈율에돼어쬆어되겠습니다통하여본적으릴쌩활웝됐으합니다."

12聚()1호인종옥리큐엘령습니대()우늘날의속으맠씀秥겠습니()()()라당용예3

"온 몸에 한기를 느끼면서 살아간지가 10년 이상 되어서…….이제는 별 감각이 없어요" "여성들몸화가우면조평있路니다정요帽관을펴보면영숙씨재를면말뤐습니다요굴 저는 말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이 저녁밥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저는 종양 유엠 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종양 유엠 물을 이영숙씨 앞에